

# 버섯농장 화재 EPS로 옮겨붙을라!

## 대흥농산, 작업장 용접 불티가 우레탄 바닥재로 ... EPS업계 크게 반발

12월17일 발생한 경상북도 청도면 소재 대흥농산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6명이 부상당하면서 EPS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농장의 구조물에 쓰인 재질이 EPS패널이라는 이유로 화재의 주범을 EPS패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EPS패널 생산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발포스티렌협회 이원항 전무는 “버섯농장 화재사건은 샌드위치 패널의 문제가 아닌 직원들의 안전소홀이 원인인데 왜 자꾸 EPS를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만만한 것이 EPS인가?”라며 EPS패널을 화재원인으로 몰아붙이는 움직임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버섯농장 화재 문제가 EPS업계의 문제인 양 확대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도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나 EPS패널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아직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공장에 적체돼 있던 다른 가연물에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화재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바닥의 우레탄폼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불꽃이 버섯 배양에 쓰이는 톱밥이나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용기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방에 가연물질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한 근로자들의 안이한 안전의식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용접작업을 시행한 근로자는 자격을 갖춘 기능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에 스프링쿨러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다른 농장 관계자는 “버섯농장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버섯은 입병-살균-냉각 과정을 거친 배양물질에 종균을 접종한 후 다시 배양과 재배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데, 특히 냉각실은 배양물질을 식히는 공간으로 살균처리기에서 막 꺼낸 배양물질은 온도가 90℃ 이상이며 냉각실에 들어갈 때의 온도도 70℃가 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계속 작동하게 되며 버섯 재배 자체에 지장을 받게 된다.

다만, 공장 상황에 대해서는 “공장내부에 배양용 톱밥이나 포장용기들이 널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버섯농장 내부에는 별다른 발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아닌 이상 화재가 발생할 일은 없다”며 화재 발생은 용접작업 과정에서의 과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소방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조사관들이 돌아오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화재원인은 없으나 화재 진압이 끝난 후 EPS패널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9>